

여수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 생기나

지역 경영인들 간담회 갖고 국회의원 등 정치권 연대 방안 추진

해양기후변화센터 설립, 학교·기업체 체험장·연수원 조성 모색

여수 경영인들이 박람회장 사후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박람회장 매각을 통한 정부의 선투자금 회수 방침을 철회하고 국립해양기후변화센터 설립, 각 학교·기관·기업의 체험장 및 연수원 조성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여수 경영인협회는 4일 “최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추진위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영인들이 지역 경의원 등 정치권과 연대해 반드시 사후 활용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람회 사후 활용 추진위 류중구 상임위원장, 과종철 정책 기획위원장, 김숙자 시민참여위원장

강조했다.

경영인들은 정부 방침에 반대하면서 기업 경영의 사고에서 새로운 대안들을 내놓기도 했다.

류중구 상임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조성한 박람회장을 정부가 4000억원에 무조건 청산하려는 것은 호남 출대가 심각한 우리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때각에 의한 선투자금 회수를 철회하고 진정한 사후 활용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선택하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사무총장은 박람회 유치와

여수선언문, 박근혜 대통령의 동서 통합지대공약에 맞는 국립해양기후 변화체험센터를 설립과 학교 체험장 및 기관·기업 연수원 활용 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가 한 대기업이 200억원 정도의 주가 투자 만으로도 2조1000억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 제안에도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람회 사후 활용 추진위와 경영인들은 새누리당, 민주당 등 정치권에 이 같은 의견과 제안을 전달하는 방안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조선업종 인력수급 걱정된다

목포고용노동지청, 17개 기관과 업무협약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선범)은 4일 “지난 3일 목포고용노동지청 회의실에서 목포시 등 1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종 인력수급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남 서남권 지역의 핵심산업인 조선업의 경기침체로 관련 업체 직원 감소와 근로자 유출 등이 우려돼 이뤄졌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그러나 최근 지역 조선업 주도업체인 현대삼호중공업(주)과 대한조선(주)의 수주물량 증가 등으로, 조선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2014년 이후 2500여명 이상의 신규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현대삼호중공업(주), 대한조선(주), 현대삼호중공업(주)협력사협의회, 대한조선(주)협력사협의회, 목포대, 목포과학대, 세한대, 한국폴리텍V대학 목포캠퍼스, 전남도교육청,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사, CJ헬로비전 호남방송, (재)중앙종합직업전문학교, (재)한국직업전문학교 등이 참여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강진군, 농업분야 국비 11억 확보

강진군은 4일 “2014년 농업분야 국비 공모사업비 최종 151억원을 확보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농업분야에 최종 선정된 공모 사업은 금강천권역정비사업(41억 원), 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40억 원), 향토산업육성사업(30억 원), 식품산업육성(13억 원) 등 총 11건(151 억원)이다.

군은 국비 공모사업의 지원기준에 맞춰 사전에 선도경쟁력 육성과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등이 이 같은 농업분야 국비 공모사업 선정의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비 공모사업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지역민·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군은 농업분야 공모사업 선정 추진전략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한 바 있다.

강 군수는 “국비 지원비율이 높은 공모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극복하는 방안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유치해야 될 사업은 학연, 지연, 혈연 등 모든 인연의 끈을 총동원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려 다녀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보성군, 조림·숲가꾸기 산림 평가

2년 연속 1위…사업비 150억 받아

보성군은 4일 “최근 조림, 숲 가꾸기 산림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으며 지난달 28일에는 산림경영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1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분야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2013년도 산림사업 실적을 각 지표별 점수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보성군은 조림, 숲 가꾸기 사업과 산림분야 제도개선 등 평가 전반에 걸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과 함께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또 산림청 공모사업인 선도 산림경영단지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세한 산주의 어려운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비 150억원을 10년간 투자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는 봉화산 주변 2500ha로 영세 산주 778명에게 가지치기, 숙아베기, 수화 간벌, 벌채, 조림, 작업로, 사방사업 등 숲 가꾸기 사업과 조림벌채사업비를 지원하며, 목재 등의 임산물을 판매수익금은 산주에게 돌려준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목포청호로타리클럽 회원 등 ‘사랑나눔 연탄봉사’

국제로터리3710지구(광주·전남 서부) 목포청호로타리클럽(회장 김영현) 회

원, 가족, 후원 2개 청소년클럽 회원, 회원 직장 학원생 등 150여명은 최근 목포지역 고지대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주민 등 12세대와 유달경로당 등에 연탄 3800장(300만원 상당)을 5시간여에 걸쳐 배달했다. 목포청호로타리클럽은 다음달 2차 사랑나눔 연탄봉사에 나설 예정이며, 오는 7일에는 6개의 아동시설과 결손가정 12세대를 위해 김정김치를 담가 전달한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kwangju.co.kr

무안군 ‘버티기 행정’…민원인 ‘뿔났다’

지입택시 면허취소·유가보조금 환수조치 ‘미적미적’

道행심위 결정 가축사육 초지조성 허가도 ‘차일피일’

법원이 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군은 지금까지도 사업자면 허증 반납과 자진발소, 6730만원의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를 미루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불법 차량에 대해 행정절차 처분을 마치겠다”며 “내년 1월 말 택시총량제 응

역을 실시해 3월 말까지 개인택시 신규면허 기준 법인택시 증차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년 전 군이 제시한 방안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 사업자가 무안군 일로읍 구정리 일대 9만8801m²에 조지(사료작물재배) 조성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은 축사지육계획이 없고, 초기조성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성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3월 4일 불허했다.

사업자는 이 같은 군의 처분에 반발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조지조성인허가 청구관련을 요구, 지난 6월 18일 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사업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군이 이 같은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역시 반영하지 않고 업무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자 이 사업자는 지난달 18일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나주시, 12월 31일 자정 ‘제야의 복’ 두드림 행사

나주시는 4일 “오는 12월 31일 자정에 ‘정수루’에서 ‘제야의 복’ 두드림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31일 밤 11시 45분부터 나주 동헌 정문이었던 정수루(전남도 문화재자료 제86호)에서 나주시립국악단의 복 공연과 임성훈 나주시장의 신년 메시지 발표, 자정 정각에 각계 각층의 시민 34인이 모여 34번의 복 두드림, 시립합창단 공연, 떡국 나눠 먹기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 두드림 횟수를 34번은, 나주 지역

의 산 가운데 100m 이상의 산악 24곳과 주요 하천 10곳을 합한 수치를 상정한다. 복 두드림 행사에는 임성훈 시장과 김종문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 6명, 갑오년(1954년) 출생시민 1명, 동서남북 끝 마을 대표 각 1명씩, 향교와 학생 대표 등 23명, 다문화 가정의 여성 1명 등 모두 34명이다. 시는 또 공군 8362부대와 협의해 2014년 1월 1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금성산 정상을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주=손정철기자 ycs0n@

담양소방서 ‘소소심’ 익히기 교육

창평우리병원서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시연

담양소방서(서장 이민호)는 최근 창평우리병원을 찾아가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줄임말) 익히기’와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소방서 직원들은 이날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위급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응급대처 요령을

접 시연하고 가르쳤다.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기간 동안 소소심 교육·홍보를 적극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 ‘소소심’을 활용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천해 가겠다”고 전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j@

순천 노두·내동마을

‘998쉼터’ 개소식

겨울에만 경로당에서 숙식을 해결하도록 하는 장소로, 순천시의 특수시책이다.

순천시는 지난 3일 향동 노두마을과 낙안 내동 쉼터 등에서 998쉼터 개소식에 조총훈 시장을 비롯한 마을주민 및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 현관식을 가졌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